

회춘의 샘을 찾아라

회춘의 샘이란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씻으면 젊어진다는 신비한 샘을 말한다. 서양인들이 회춘의 샘과 같은 신비한 샘이나 그런 류의 것들을 찾은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회춘의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에도 회춘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이집트 원정시에 회춘의 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았지만 허사로 돌아갔다고 한다. 에니메이션 '라퐁젤'에서는 매지플라워라는 회춘의 꽃이 나온다. 16세기에 폰세 드 레온(Ponce De Leon)이라는 스페인 탐험가가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지금의 바하마의 비미니(Bimini)에서 회춘의 샘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푸에토리코 초대 총독이다. 그 샘이라고 알려진 곳을 어떤 유튜브가 촬영하였다. 그림참조 (https://youtube/Ync_3K2vkd4).



회춘의 샘이나 불로초나 모두 인간들이 젊어지고 싶은 욕구, 무병장수를 누리고 싶은 욕구, 더 나아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수도의 경지에도 회춘의 샘 있다

불가(佛家)나 선가(仙家)에서도 회춘의 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개운조사가 펴냈다는 '유가수련증합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수도를 하여 올라가면 회춘을 하게 된다. 첫번째 단계는 수도원(수도원)에 들어오면 붉은 피가 하얀 기름으로 바뀐다. 노인네는 도로 젊어진다. 하얀 백발이 검게 변하며, 빠졌던 이도 다시 난다. 또 손을 대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 입김으로 수운을 말할 수도 있다. 추위나 더위를 전혀 안 탄다. 맨손으로 바위에 다 글씨를 새길 수 있다. 자태는 옥(玉)으로 다듬어 놓은 나무와 같이 아름다워진다. 피부는 금빛이 돌며 투명해진다. 정신이 한없이 밝고 맑아서 잠이 안 온다. 오

가버워진다. 눈에서는 번개같은 광채가 뿜어나온다. 시력이 아주 좋아져서 백결음 밖에 있는 머리카락도 볼 수 있다. 또 흉터와 주름살이 저절로 없어진다.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며칠씩 굶어도 힘이 넘친다고 하고 있다.

이 경지 또한 감로를 받으면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승리제단 교인들의 간증이 있는 것을 보아 쉽게 이해된다.

세번째 단계는 아나함(아나함)과를 얻으면 붉은 피가 하얀 기름으로 바뀐다. 노인네는 도로 젊어진다. 하얀 백발이 검게 변하며, 빠졌던 이도 다시 난다. 또 손을 대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 입김으로 수운을 말할 수도 있다. 추위나 더위를 전혀 안 탄다. 맨손으로 바위에 다 글씨를 새길 수 있다. 자태는 옥(玉)으로 다듬어 놓은 나무와 같이 아름다워진다. 피부는 금빛이 돌며 투명해진다. 정신이 한없이 밝고 맑아서 잠이 안 온다. 오

랫동안 잠을 안 자도 전혀 피로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고대하던 바를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 도로 젊어지는 것이다.

네번째는 아라한(아라한)이 되면, 티 하나 없이 맑고 드높아져서 하늘과 일치한다. 마음은 항상 화엄국(극락, 천국 仙界)에서 노닌다. 세상과 인간의 일을 모두 알 수 있다. 아득한 과거의 일, 까마득한 미래의 일도 모두 환하게 헤아린다. 또 공덕과 수행이 부처님을 빼닮는다. 눈에는 붉은 노을이 가득하고 금빛 광채가 온몸을 감싼다. 주위에 오색구름이 둘러싸며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하늘 높이 날기도 하고, 한 순간에 수천 수만리 떨어진 곳을 옮겨가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구세주 조희성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은 내용이라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경지는 부처(하나님)의 경지이다.

진정한 회춘의 샘은 하나님보좌

성경에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내 백성(백성)이 두가지 惡(악)을 행(행)하였나니 곧生水(생수)의 根源(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예레미야 2:13)" "너희 목마른 者(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者(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葡萄酒(포도주)와 젖을 사라(사야 55:1)" "나를 믿는 者(자)는 聖經(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生水(생수)의 江(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요한복음 7:38)"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생수 즉 회춘의 샘이라는 구절이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임을 알고 그 샘을 찾아서 영생의 존재가 된 첫번째 사람이 바로 조희성님이다. 누구든지 그 샘에 가면 값 없이 맑게 마시고 영생을 얻게 된다.*

람이아말로 가장 악하며 가장 무식한 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아무리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영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교수가 무식쟁이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원수(怨讐)로 여기고 원수와 짝꿍했던 인연과 하나씩 이별을 고하는 사람 이아말로 진짜 지성인(知性人)이요 각인(覺人)이요 의인(義人)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사람의 본래의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릎을 치면서 알게 될 때면 거의 제정신을 차리는 단계인데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하나님의 나란 정신]을 마음그릇 속에 가득 담고 사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永生)을 당연히 여기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랴.* 안영훈 송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72> “사망의 고통을 이겨야 영생”

인간은 쇠값으로 말미암아 힘이 들고 고통이 오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다. 이 길은 영생 길이다. 그러므로 사망의 고통을 이겨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사망을 이기지 않고서는 결단코 구원과 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사망을 이겨야 구원을 얻게 되는 고로 어렵고 힘든 것을 피하여 쉬운 길로 가

려는 사람은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긴자가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것은 우주를 이긴 것이요, 세상을 이긴 것이요, 사망을 이긴 것이요, 온 세상 마귀를 이긴 것이다. 이 길은 영생을 향해서 가는 길이지, 수양하러 다니는 길이나 놀러다니는 길이 아니다.*

행복한 노년 준비 세번째

치매예방 프로젝트5 아는 사람 잡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봤어도 무관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고장이 났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집중해서 듣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후자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자는 근본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뇌(신체)가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일이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생활 전반적으로 경도인지장애를 가져올 만한 과정을 거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정해진 치료법은 없다고 하니, 이를 극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성격, 생활습관, 식습관, 사고방식을 돌이켜 살펴봐야 합니다. 평생시에 화를 잘 낸다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다거나 등.

이와 같은 생활양상을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작은 휴지나 쓰레기를 방에다 생각없이 갖다 놓았다 치십시오. 집은 금세 쓰레기로 어지럽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다년간 지속되었다면 집안은 온통 쓰레기로 움푹푹 찌꺼기 쌓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온갖 쓰레기와 같은 이물질들을 피를 통하여 뇌세포에 계속 들어보내다보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도인지장애가 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 즉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에 온갖 이물질이 들어앉아 신경을 교란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기억력, 주의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판단력 등이 저하된 상태) 환자는 매년 10-15%가 치매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정상 노인에서 매년 1-2%정도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간혹 경도인지장애(온갖 쓰레기와 같은 이물질을 뇌에 많이 쌓아 놓은 상태)를 진단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관리를 소홀히 해 치매(쓰레기가 꽉 찬 상태)로 진행돼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의 진단은 포괄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자세한 병력청취, 신체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나 조금 더 정밀하고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를 평가하며 일상생활능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이상증상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좋지 못한 생활 전반에 대하여 뜯어고쳐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삶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를 보 이면서 영상검사에서 해마 위축을 보인다면 즉각적으로 약물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환자 자신이 기억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증상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최근의 일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성격변화가 생겼다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게 권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주호 기자

무위無爲

마침 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십년 동안 목매어 외치고 있다. 그놈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라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애쓰며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하는 방법, 항상 바로 옆에서 존재하는 진리를 손아귀에 고스란히 쥐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은 간단하다. 구세주라는 존재를 그 마음 그릇에 담으면 된다. 그러면 새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 사람의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되니가 제대로 생각하게 되고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사람의 생각하는 힘을 사용하지 않기에 무위(無

爲)의 방법이 되겠다. 무위란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무엇을 하지 않는가 하면 [인간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래서 그토록 찰떡처럼 붙어있던 '나'와 '이별'을 고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만 가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황제다. 왜냐하면 '악의 근본'과 헤어져서 그렇다. 불운의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강도와 도둑 혹은 사기꾼과 같은 형사범이 줄어들기에 인간사회에 있어서도 경사스런 일이 되겠다.

'나'와 '이별'을 고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진짜인지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의견을 꺾지 아니하려는 사람 이런 사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한번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내가 누구이지?' 혹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지?' 그러나 거기에 명쾌한 답변을 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렇기에 정답을 얻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꼭 끌어안고 살아간다. 끌어안는 것도 대강적이지 아니다. 갈비뼈가 딱 부러져(?) 나가고 록 힘주어서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지식이 미천하다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실상을 말하자면 영터리 주장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악(惡) 중에 악임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승리제단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와 경전속의 근거를 들어서 사람들이 품고 있는 자기 자신, 나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모시면 만사형통이 된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점령하는 과정을 담은 책

하나님은 당신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읽기 원하는 분들은 주소를 적어서 아래의 번호로 문자 또는 이메일 주시면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도서출판 해인 담당자 010-3019-1440, bookman5@naver.com

본부제단 11월 성적 1등 5지역 개인 1등 석선자 권사



5지역 강춘희 부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 지회장: 신순이
- 2등: 6지역(지역장: 안병천)
- 지회장: 석선자
- 3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 지회장: 이영애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구역장 회의에서는 2019년 11월 성적에 대한 상이 있었다.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 *구역 1등: 21구역(구역장: 안명숙)
- 2등: 46구역(구역장: 박철수)
- 3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 *개인 1등: 석선자 권사
- 2등: 신순이 권사
- 3등: 안병천 송사*